

국제통상질서의 층화구조와 보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yered structure and sup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e order

고용부(Ko, Yong Bu)**

요 약 (ABSTRACT)

국제주의 질서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일용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면서도 후자가 역내 자유주의와 역외 보호주의라는 양면성을가지므로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 이론이나 GATT나 WTO의 현실인정의 예외 규정으로 보완내지 공존관계에 있음이 현실이고 나아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가 국제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볼 때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제주의질서와는 별개로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현실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통상환경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 이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컨대 우리경제가 OECD에 가입했고 선진경제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시각에서 통상관련제도를, 국제주의 질서의 측면에서 최대한 개편 보강하여 통상협력 하는 한편, 지역주의나 쌍무주의 측면에서도 권역별로 층화된 수단의 최적 Mix를 도출함으로써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ased on UR trade negotiation.

In such state, the international commerce cooperation, which means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relaxation or abolition of customs and noncustoms harrier, is necessary a country's policy for overseas strategy.

To the view point of international commerce order, there co-exist the globalism represntated by GATT/WTO and the regionalism operated by European Community including 15 countries, or North American Zone with canada, Maxico.

The former expands the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of WTO among whole world nations and the latter takes the differential trade policy to other countries.

For extreme dependence on foreign natural resources and raw materials, Our country should strengthen it'comming prospect for the world economy.

To put it more concrete, We must enforce in advance the legal basis of convention and norm which in adopted by WTO.

Also we are desirable to cooperate with Asia and pacific economy area or APEC.

Finally, under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environment and world economy, we must take the commerce cooperation in global order considering the tendency of regionalism and bloc economy.

* 본 논문은 2001년도 본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목	차
I. 서론	2. 국제주의와 쌍무주의
II. 국제통상의 총화구조와 특성	IV. 우리나라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대응 방안
1. 국제주의	1. 국제통상의 공존현상과 통상환경
2. 지역주의	2. 우리나라의 통상질서별 현안과 대응 방안
3. 쌍무주의	
III. 국제통상질서의 역할과 보완성	V. 요약 및 결론
1.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I. 서론

오늘날의 세계경제 질서는 국경 없는 경제시대, 전방위무한경쟁시대, 경제적 실용주의시대 등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지역간·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가간 지역간의 동조화 현상과 함께 국경이 없는 거대한 경쟁 시장으로 편입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전세계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은 가장비용이 적게드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경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데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이후 비약적인 발달을 본 상품제조기술과 정보통신, 교통의 혁명 그리고 국가간 투자의 확대 등 기술적·자본적인 여러 요인 이외에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WTO로 대표되는 다자적인 무역체제의 확립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경쟁의 조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¹⁾

또한 지금까지 자유주의 경제권과는 소원하였던 사회주의 경제권이 시장경제체제로 재 편입되면서 세계경제 영역이 전 지구로 넓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군비축소를 통해 세계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이른바 지구촌 경제를 가능케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자유무역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면서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양상을 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 질서도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다국간 무역체제와 함께 이른바 경제블록으로 불리는 지역주의 경향이 계속 확대되어 국제주의 질서와 지역주의 질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전자로 대변되는 WTO체제는 95년 1월부터 GATT를 대체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공산품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 교역,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으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현금의 국제통상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후자로 대변되는 지역주의는 탈냉전시대의 3극체제인 유럽·북미·동아시아와 대응하여 유럽은

¹⁾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3. p.4

유럽연합체인 EU로 통합하여 심화과정에 들어서 있고, 미주지역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중심을 지역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결실은 없으나 지역화를 위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한편 동서를 연계하여 태평양지역의 상호의존성(Trans-Pacific Interdependence)을 유지하기 위해 태평양 영안 국가들은 세대 최대 경제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결성하고 있다.²⁾

한편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높은 인구밀도에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방적 경제체제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1960년대 이래 대외지향 전략이 특히 중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60~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및 수출지향을 통한 고도성장과 함께 국가간 협력이 계속 요구되어 왔으나 80년대 이후에는 1,000억불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왔고, 특히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모든 부문에 걸쳐 개방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통상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미국이나 EU 등의 지역화 경향이 공존한데다 어떤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제주의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가면서도 선진국이 주축이 된 지역주의화 경향에 대해서도 전략적 선택이나 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I. 국제 통상 질서의 총화구조와 특성

1. 국제주의

가. 개념

국제주의(Globalism) 또는 다자주의(Multilateral Globalism)는 경제적 교류 특히 무역관계에 있어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해주며(최혜국 대우) 호혜주의에 입각한 상호 협상에 의하여 경제관계의 모든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완전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으로³⁾ 세계전체를 하나의 경제질서 혹은 규범화에 두려는 목적을 가지며⁴⁾ 범세계화적 차원에서 통상관련 협상을 하거나 규칙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주의적 협력은 국제통상장벽을 완화하기 국제관세 인하를 비롯 수량제한철폐, 통관절차나 각종 관세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간소화와 표준화 그리고 외환자유화 등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주의적 통상협력은 주로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서 수행된다.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통상협력

2) APEC은 구성원의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 비구속성(Non-binding Nature)등으로 통합화된 지역블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지역의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여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화에 한몫을 하고 있고 블록화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김세원, 국제경제질서, 무역경영사, 1985, p.380

4) Lawrence B. Krause "Regionalism in world Trade : The limit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Harvard int'l Review, summer, 1991 p11.

을 수행하고 있는 규제구조는 무역, 통관, 금융에 대한 GATT(WTO)와 UNCTAD, CCC, IMF 등을 들 수 있다.

전후에 출범한 GATT가 1900년대 후반의 국제 통상규범이라면 이를 계승한 WTO는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무역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대 전반의 국제통상규범이라 할 수 있고 UNCTAD는 남과 북의 불균형한 경제관계를 무역확대를 통해서 균형화하고자 하는 국제규범이며, OECD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 개발 규범이고, IMF는 국제통화와 국제금융시장문제의 해결을 다각적 방식 즉 각국간의 상이에 따르는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교역을 지원하는 통관 표준화 규범이다.

이주에서도 2차대전 이후 설립한 GATT 체제나 이를 계승한 WTO 체제는 국제주의 국제통상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상규범이라 할 수 있다.

나. 배경

전후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통상협력질서가 요구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GATT는 제 2차대전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보호주의적 관세전쟁에 대한 각국의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1929년의 대공황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의 활로를 모색키 위해 이른바 근린공평화정책을 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선제계적인 관세전쟁이 유발되었다.

1930년 미국이 관세법을 개정, 보호주의 체제를 강화하자 캐나다와 유럽각국도 잇달아 관세인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1931년에는 총65개국이 관세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수입수량제한 조치로서 무역장벽을 높게 구축하였다. 미국은 또 1933년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조치를 취하게 되매 각국 환율의 불안정화와 다각적 결제의 곤란을 초래,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유발시켰다.

이와 같은 관세인하·수입수량 제한·외환통제 도입 등의 보호주의적 조치는 수출국에게 과잉제고의 덤핑과 환율인하에 의한 저가수출을 촉진, 이것은 다시 무역장벽을 두텁게 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리하여 각국은 극단적인 축소균형 상태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특혜관세 지역의 설정·강화 또는 이국간 동맹을 체결, 블록 경제화함으로써 자국의 경제권을 확보하려 했다.⁵⁾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과 전시폐쇄경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은 대전 중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전의 지역적 Bloc경제와 근린공평화정책이 세계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됨을 실감하고 전후에 국제적인 협력체제 아래서 각국의 경제를 균형있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세계평화의 확립을 위해 경제의 블록화를 피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협력, 자유롭고 원활한 국제무역의 발전을 꾀하려 했다.⁶⁾

결국 이러한 바탕위에 각국이 이룩한 협력의 소산이 바로 국제주의 통상질서로 대표되는 GATT라는 과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GATT중심의 무역체제는 다국간 무역체제의 쇠퇴, GATT기능의 약화, 신보호주의 및 관리 무역의 강화 등으로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① 세계 각국이 다함께 공통분모를 가지고 참여하는 방안(Universal membership system)과 ② 현재의 체제를 여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Effective multilaterality)으로 대립되면서 GATT도 기능을 수정·보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타

⁵⁾ J.A L'Huilier, Theorie et Partigue de la Cagsiration Economique Internationale, Ed. Genin, paris, 1957, p.2.

⁶⁾ Dam, The GATT-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Univ of Chicago press, 1977), p.10.

협의 산물이 WTO라는 새로운 체제이다.

다. 운용상의 특성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자주의의 원칙들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불가분성(Indivisibility)”이다. 국제관계에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오늘날 과 같이 국가간 상호의존의 수준이 높을 때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국제적 외부 효과가 크게 증대되어 한 국가의 행동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다른 국가들의 협조 여하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둘째,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이다. 국가들 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어떤 원칙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다른 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똑같은 것을 주고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대체로 균형잡힌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 각각의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 구체적 호혜성(specific reciprocity)”을 추구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포괄적 호혜성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손익문제를 쌍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자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쌍무적 갈등의 개연성을 낮추어준다. 예컨대, A국과 B국 사이의 거래에서 A국이 입는 손실이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쌍무적 불균형이 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한 체계적 수준에서의 안전성이 증가한다.

라. 유지발전의 이유

국제관계를 주권국가들이 힘을 바탕으로 주권을 보전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장이라고 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국제제도란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거나 존재하더라도 국제관계의 주변적인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다. 특히, 다자적 제도들의 경우 보편적 규칙들이 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을 상당히 제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립도 어렵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도 어렵다. 또한, 다자주의를 주도하는 패권주의가 쇠퇴한다든지 다자적 제도들의 창설을 주도하면서도 그러한 국제제도들이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다자적 제도가 실제 작동에 있어서 소수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지배될 때에는 기존의 다자적 제도들은 새롭게 변화한 국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 못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는 국제관계를 조직화하는 원리로서 유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적제도 존재 자체이다. 다자적 제도들은 일단 설립되고 나면 그 작동에 있어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교류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제도적관성(institutional inertia)’ 과 ‘적응력(adaptability)’이 뛰어나 계속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

다자적 제도들이 갖는 이러한 속성을 러기는 ① 포괄적 호혜성에 대한 기대: ② 일반원칙들의 탄력성: ③ 호의적인 국내환경: ④ 패권국 단독이 아니라 상대국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운영: ⑤ 제도적 발명력(institutional inventiveness). 즉, 다자적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 등 다섯 가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자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 제기된다고 해도 특정한 이해관계나 상황에 기초한 제도들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다자적 제도들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국가들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조정되는 ‘투쟁과 조종의 장’ 으로서도 기능함으로써 이에 환경변화와 새로운 갈등관계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도들을 창출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심화현상이다. 오늘날 각국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미국 20%, 일본 30%, EU 60%수준이고 평균 34%의 해외 투자도 8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특혜적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 초 국제기업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통합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상호작용관계가 불가분성을 강하게 보이면서 이제 어떠한 나라도 자국의 경제 문제를 세계경제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국제통상질서가 국제주의적 접근 내지 다주주의화 되는 이유가 있다. 또한 무역의존의 증대와 세계경제 통합 심화는 국내적으로도 증대와 변화를 가져온다. 즉 무역의존의 수준이 높을수록 무역과 관련 분야의 비중이 생산면에서나 고용면에서 증대하고 무역정책이 국내집단들간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한다. 이는 곧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보호무역경향에 반대하는 사회적 세력 예컨대 가계소비자, 초국적기업, 산업연합조직, 수출업자, 수입중간계 사용자, 도매업자 및 무역관련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수출국의 정부와 생산자 등의 증대를 의미하고 국제주의 또는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에 대한 포기를 어렵게 한다.

셋째, 탈냉전 이후 경제우선의 국제관계이다. 냉전구조의 와해와 더불어 안보문제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그 내용도 바뀌었다. 이제 국가안보는 더 이상 군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국제경쟁력, 환경보전, 사회적 안정 등이 모두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었다.

국제경쟁에서의 패배는 국가의 경제적 토대의 붕괴를 가져오므로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경쟁이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전쟁이 군사적 경쟁과 다른점은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경제문제가 우선 시 되는 국제관계에서는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이는 국제협력을 가로막는 ‘상대적 이득’ 에 대한 민감도가 경쟁우위의 국제질서에서는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적 힘의 불균형 완화이다. 국제질서에 관한 패권안정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주요국가들 간에 힘의 불균형이 극심한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자주의적 질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강대국의 시혜나 강제에 의해서 다자적 체제의 겉모양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질서는 패권체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외형상으로는 다자간 협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은 미국의 일방적 주도 내지 미국과 유럽의 ‘소수대국주의(minilateralism)’가 지배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2. 지역주의

가. 개념

지역주의(regionalism)란 국가간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폐하는데 있어 지역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문화적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국가들끼리 자유-무차별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상의 흐름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실천하려는 GATT나 WTO의 다자간주의(Multilateralism)내지는 국제주의(Globalism)에 대비되는 개념이다.⁷⁾

이를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일정주권국가간 단일의 확대시장을 단계별로 실현한다는 장기적 목표아래 다른 국가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제적 혜택을 교환하기 위한 태두리를 설정하는 정책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⁸⁾

2차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역주의 경향은 EC의 출범과 결속강화, 북미경제권 추진, 개도국권의 통합확대, 일본의 아태평양 경제권 및 중국의 대중국권 구상 등으로 표출되어 UR 타결에 따른 WTO협정상의 국제주의와의 관계설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배경

1) 상호 무차별 원칙의 결합

전후 국제주의를 근간으로 출발한 GATT는 기본적으로 호혜주의 원칙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호혜주의 원칙은 자유화를 지향함에 있어 정도를 달리하는 제국간의 교섭을 곤란하게 하였고 무차별 원칙은 세계각국으로 하여금 자주적인 관세인하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 GATT방식에 의한 자유무역화는 조속한 실현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자유화는 조속한 실현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의견을 같이한 국가들이 지역적 협정을 체결, 역내 가맹국간에는 호혜무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원칙을 유보, 지역적인 자유화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역주의화의 배경이 있다.⁹⁾

2) 보험정책의 논리

지역주의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GATT체제하의 다자주의 추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 지역 및 국가들이 세계교역질서 및 환경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보험정책”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기인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이 UR협상이 정체상태에 있던 1990년 초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WTO출범이후에도 35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아무런 지역무역협정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써 지역주의에 대한 경험을 축적 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경제의 역학이론

국제경제관계론에 입각한 지역주의화는 국가와 국가간 또는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반응에 대한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역반응 관계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표출되었고, 이는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상은 EU의 단일시장 추진으로, EU의 단일시장추진은 미국의 FTA추진으로, 이는 다시 일본의 동태평양 경제권 구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⁷⁾ 文衡基 외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와 우리의 대응”, 국제경제동향 6권 8호, 1988, p.1.

⁸⁾ G. N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Harper & Row, NY, 1964, p.11, 및 J. Tin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N.H., Amsterdam, 1965, p.57.

⁹⁾ 田中喜助, 本清, 貿易의 經濟學, 東京: 有斐閣, 1977, p.175.

특히 1970년대 일본경제의 부상,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은 EU와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저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주의 성향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⁰⁾

다. 운용상의 특성

첫째, 지역주의는 전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범세계주의 즉, 모든 나라와 무차별 평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공박하는 한편 세계 각국간에는 서로 다른 요인이 있으며 상이한 역사·문화·경제적 배경이 있고 경제적으로 다양하므로 상호존관계가 높은 국가끼리 결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찾자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한 지역주의가 지역간의 무역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범세계적으로 차별화를 의미하므로 자유무역에는 역행적 성향이 존재하고 따라서 전전의 개별적이고 국가적인 무역정책이 아니고 초국가적 지역적 그룹화를 통한 무역정책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주의적 자유무역주의와의 충돌가능성이 문제된다.

둘째, 지역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부 특정국가들간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품보다 더 낮게 부과하여 역내 생산품에 대해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혜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자기 다른 개발경제들이 하나의 더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며 결합되어 가는 과정 또는 그 상태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라고 지칭하며, 더 나아가 경제통합은 참여국가들간 과세를 포함한 모든 장벽들을 차별적으로 제거함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정책조정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경제통합의 형태로 실행 계획되어 왔는데 그 통합 정도에 따라 대체로 ①자유무역지대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경제 통합의 제 가지로 운용된다.

셋째, 지역주의가 세계경제질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자유무역 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주의의 체결에 따른 '무역창출(trade-creation)' 과 '무역전환(trade-diversion)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좌우된다.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역내무역의 증가에 이바지 한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무역증가가 무역장벽의 제거에 따른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재배치의 결과인가 상대적으로 역외 국가들을 차별함으로써 생기는 역외무역의 감소 결과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자인 경우,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복지(소득)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조성이 마련이 되는 셈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라면, 지역주의는 역내의 모두의 복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의의 등장은 경제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로 설명되어야 한다.

라. 지역주의의 권역별 비교

지역주의 경제권의 대표적권역인 ① EU중심의 유럽경제권과 ② 미국중심의 북미경제권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¹⁾

목적상 ①은 유럽은 하나라는 인식 아래 시장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이 목적이나 ②는 무역수지

10) 文衡基 외 전제서, p.3

11) 고용부, "집단지 보호주의 체제의 비교 연구",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1991. 12, p.206-208.

의 적자 및 미국의 국제경제상 지위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격상으로는 ①은 회원국을 서유럽 국가로 한정하거나 유럽국가로 확대할 뿐이라는 점에서 폐쇄성을 가지며, 통합형태로도 관세동맹에 기초하여 공동시장의 단계를 지나 경제동맹의 단계에 있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지역성과 배타성, 차별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집단적 보호주의화 내지는 EU의 요새화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②는 다자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점조직적 도는 별모양의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럽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또 대상국을 한정하지 않고 지역적 근접성을 요구하지 않아 개방성을 가지며, 대외공동정책을 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역외국가간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을 뿐 EU의 요새화 내지는 차별정책과는 구별된다.

또 이념상으로는 ①의 지역주의는 EU의 목적에 부합시키는 보호주의 내지는 집단적 보호주의의 추구이나 ②는 다자간 체제를 보완하는 대체적 중기적 전략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전략적 동기면에서도 ①은 비교우위가 약한 취약부문에 대해 보호주의를 강화하여 거센 외부경쟁을 방어하는 수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②는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대상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확대를 겨냥한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내용상으로는 ①은 무역 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등 경제활동 전반의 통합, 나아가서는 정치적 통합까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②는 주로 무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를 포함할 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효과 및 전망면에서 보면 ①은 1985년 이래의 역외시장통합에 이어 통화통합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는 이외에도 1993년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과 제휴, 북유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19개국을 연결하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을 창설했고, 나아가 시장경제체질 전환하고 있는 소련 및 동구국가들 까지도 포괄하는 전유럽지역의 자유공동시장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럽합중국 내지는 범유럽경제권으로 불리는 세계최대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지향하고 있고 ②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NAFTA를 축으로하여 이를 남미까지 확대하여 범미주구상까지 추진하거나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에 대해서도 쌍방적 도는 축소다자주의(mini-multilateralism)의 방식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쌍무주의

가. 개념

쌍무주의는 국제통상에 관련한 현안문제를 당사국 또는 이국간에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쌍무주의는 상호주의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호주의를 국제무역상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요구하는 포괄적 원리로 본다면, 쌍무주의는 무역문제해결방식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쌍무주의 혹은 이국간주의(bilateralism)가 무역협상에서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협상교섭력이 강한 나라의 일방적 강요와 협상교섭력이 대등한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무주의는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역상대국으로 하여금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보호배치의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동시에, 보호주의적 정부 또는 민간압력단체에게 자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즉, MFN 원칙에 대한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특정문제, 예컨대 서비스 시장개방 혹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쌍무주의의 배경 및 논리

쌍무주의는 EU성립을 시작으로 각종 자유무역지대·특혜협정 등이 인정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1950~1960 연대에도 물론 존재했으나, 197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어 GATT의 다자주의와 쌍무주의 혼재상태가 계속되면서 점차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의 장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GATT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그 이면에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쌍무적, 이국적 교섭을 보다 중시되는 경향을 초래한 경험도 있다.

쌍무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수출자유규제협정(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등의 쌍무적협정과 반덤핑·상계관세부과와 같은 쌍무적 수입 규제,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무적시장개방압력 등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쌍무주의 내지는 이국간주의는 기존의 다자주의적 무역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밖에 동서무역과 산유국을 비롯한 개도국 무역에서 날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구상무역(Counter Trade)은 그 자체가 차별적인 쌍무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당시의 GATT정신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이 논의되거나 기간중에도 중미·카리브지역·캐나다에 이어 ASEAN·일본·대만·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Area)체결을 시도한바 있다.

쌍무주의는 다자적 협소주의(다자주의)와 독자주의(적극적 자국 이익추구)의 중간위치에 있는 것으로 독자주의 성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쌍무주의는 새로운 라운드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무역장화가 진전된 특정국가들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이타국들의 참여를 넓혀 나가는 것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방안이라는데 논거를 두고 있었다.

다. 미국형의 쌍무주의

쌍무주의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히, 미국의 자무역정책추진은 현상적으로 국제무역질서상 국제주의내지 다자주의를 전면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상정책을 병행하는 양면적(dualistic)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장기·중기·단기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통상정책 가운데 중기적 성격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점조직적 자유 무역권 형성 ②다자주의의 비실효성에 대한 대체적 수단 ③해외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 ④점진적 시장자유화 클럽(Market Liberalization Club) 형성 등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통상정책으로 간주된다.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①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수동적독자주의 ②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독자주의 ③국제주의 위주의 다자적 협소주의로 구분하면서 최근까지의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체결등 일련의 지역주의 강화현상을 다자적 협소주의와 적극적 독자주의의 중간위치인 쌍무주의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의 독자주의를 우려한 지적도 있었다.¹²⁾

이처럼 미국의 국민경제정책이 다자간 협소주의와 적극적 독자주의(unilateralism)의 중간위상에

¹²⁾ C. F. Bergsten, "America's Unilateralism", Conditions for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Economic Management, The Triangle Paper : No. 32, A Task Force Report to the Triangle Commission, 1986, pp.3-11.

놓여있고 또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도 이 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ITA추진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독자주의의 한 형태로 표출되어 갈 가능성도 있다.

UR의 타결에 따라 자유경제주의 라는 일반적 무역규범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추구와 미국의 대외불균형의 확대는 향후 미국 통상질서의 앞날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WTO의 출범이후 형성될 자유무역질서에 제약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국의 경쟁력 제고에 의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의 증대라는 당면과제의 달성을 위해 NAFTA, APEC 등 지역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정국가 특정분야에 관한 협상에서는 쌍무협상도 지속하는 다양한 통상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권외의 국가들과 이를 확대할 경우 ① GATT/WTO의 최혜국 대우조항은 차별적인 관세 적용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FTA의 기본정신인 쌍방간의 상호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협의함으로써 상호시장개방을 촉진하는 지렛대 효과로 작용되며 ②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타진 또는 시사함으로써 상대국 정부가 시장개방을 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통상질서의 역할과 상호 보완성

1.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다자주의란 GATT나 UR과 같이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협상을 하거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주의란 이와는 달리 어느 일정 지역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주의란 이와는 달리 어느 일정 지역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거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주의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실현을, 지역주의는 폐쇄적으로 역내국 간만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되 역외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통상질서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가. The theory of the Second Best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간의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은 현실적으로는 세계 각국간의 경제력 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든지 각국의 타산적 자기방어 주의적 경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실현에는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차선책(Second Best)으로서¹³⁾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실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관세동맹을 비롯한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대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차선의 이론에 의하면 전범위 최적조건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 최적상태를 달성키 위한 필요조건은 일반적으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¹³⁾ M. chacholiades,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Policy, New York: McGraw Hill, 1981, p.544.

나. 보완이론

첫째, 지역주의는 세계 내에 있는 다수의 국가들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눔으로써 블록의 안과 밖에서 플레이어는 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행동의 논리를 따르면, N의 감소는 전략적 협상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개연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지역내 협력을 통하여 세계 차원의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리더쉽을 행사할수 있다. 지역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역외국가들은 배제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극복하고, 협력을 통한 이득을 획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역외국가들의 참여가 유도되고, 지역 그룹의 규모가 증대한다. 그런데 지역그룹의 증대하게 되면 보다 많은 국제무역이 역내 무역화하여 무역자유화가 진전되고, 체계적 수준에서의 자유화를 위한 리더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주의는 주요국가들이 지역주의를 무역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서 발견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쌍무주의와 지역주의를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병행시켜 추구함으로써 협상타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자간 질서의 결함을 보완해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즉 다자간 협상의 타결을 위해 시장개방협상에서 양보를 하던지 아니면 차별적 무역정책의 대상이 되어 손해를 보든지 하라는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차별적인 무역정책은 비차별적인 무역질서의 수립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된다.

다. GATT/WTO와 지역주의

다자주의는 초기부터 지역주의로 향한 유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를 규정한 GATT 제24조였다. GATT체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MFN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24조에 의해서 그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게되어 있었다. 이런 조문을 제정한 기본적 의도는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무역이 보다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4조의 제정의도와는 달리 다자주의내에 지역주의를 온존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말았다. EU가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EU의 존재는 세계 각국이 지역주의 추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그 차별적 성격과 함께 향후 주조를 이루면서 국제경제 질서의 커다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을 지적되기도 한다.¹⁵⁾

오늘날의 국제경제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있는데다 UR타결에 따른 WTO체제가 출범하고 있으므로 지역주의 자체도 세계주의에 대항하고 모순된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국제 통상질서의 틀 안에서 다자주의의 실험장 즉 역내 자유화의 다자체적용을 통한 세계무역자유화를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점에서 WTO시대하의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궁극적으로 세계주일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이거나 기본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WTO협정은 국제주의 질서의 심화확산을 통해 90년대 이전의 보호주의적 환경요인을 크게 개선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지역주의의 지속적 확산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전세계를 하나로 묶어 제도적인 통합을 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면, 지역경제체제들은 소그룹

¹⁴⁾ A. G. Lipsey and K. J. Lancaster, The Geenal Theory of Second Best,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4. No. 63, 1956, p.11-32.

¹⁵⁾ Lawrence B. Krause, "Regionalism in World Trade : The Limit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Harvard Int'l Review, summer, 1991 pp.10-13.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대그룹 통합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현상은 블록간에 대립이나 갈등의 가능성을 낮추고, 역외국가에도 개방적 자세를 갖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로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의를 세계주의로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주의와 쌍무주의

가. 자유무역과의 관계

쌍무주의는 ①시장접근 현상에 있어서 다수의 참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고 협상의 결과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자주의의 결합인 비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고, ②쌍무적인 방법으로 각국이 무역상대국과 시장개방협상을 벌여나가면 다자적 협상의 경우보다 무역개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③이는 곧 체계적 수준에서의 개방화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쌍무주의 역시 국제적 무역자유화의 한 제도적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쌍무주의가 개방성의 확대로 체계적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적질서에의 쌍무역할이다.

국제적질서의 안정성과 개방성은 패권국이 다자적 질서를 통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는 한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만, 다자적 질서가 붕괴되고 각 국가들이 교역상대국을 차별화하기 시작하면 곧 전가재로 바뀐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자적 제도들을 포기하고 무제한적 쌍무협상을 허용하는 것이 체계적 수준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길이다.

둘째, 무임승차문제의 해결이다.

다자주의의 비차별원칙은 무임승차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차별과 쌍무협상의 방식은 무임승차자를 무역자유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를 규율할 수 있다. 따라서 쌍무협상은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달성하기 어려웠던 시장개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셋째, 제3국의 참여유도이다.

경제적 차별과 정치적 흥정을 통한 쌍무적 시장개방은 제3국들로 하여금 그러한 협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체계적 수준에서의 개방확대 이어진다. 쌍무적 개방이 체계적 개방으로 확산되는 매카니즘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무역협상이 국가별 차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면 신자유무역, 반보호무역 세력의 수익과 비용을 집중시켜 이들의 집단행동이 강력해지고 따라서 국가들의 무역정책이 자유무역을 선호하게 되고, 그 둘은 쌍무적흥정의 결과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면, 참여하지 않은 제3국은 차별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제3국도 흥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쌍무주의는 현실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무역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자주의적 일반규칙의 강화를 통하여 차별적 무역협상을 강력히 제한하지 않는 한, 쌍무주의에 기초한 차별적 무역협상은 체계적 수준에서의 개방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차별적 무역관계를 소수의 국가들에게 연장한 형태인 지역주의로 발전되기 쉽다. 이는 간단히 쌍무주의와 다자주의의 취약점을 지역주의가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주고받음으로써 체계적 수준에서의 자유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보면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GATT나 WTO같은 다자적 무역체제이다. 결국, 다자적 체도에 기초한 제한이 없는 쌍무협상이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적 체도가 제대로 기능할 때 쌍무적 협상이 체계적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UR협상의 타결은 쌍무주의와 지역주의의 패해를 줄이고 다자적 질서의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강화된 WTO체제하에서는 쌍무주의나 지역주의가 다자적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자적 접근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와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무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는 서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와 심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국제무역관계의 '층화된 관리(layered governance)'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방식에 있어서의 다자적 기구는 하부 수준에 있는 집단들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 그리고 집단들 사이 및 집단의 안팎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WTO체제가 쌍무주의나 지역주의의 추세에 의해서 작동을 방해받을 가능성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무역의 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IV. 우리나라의 국제 통상질서에 대한 대응방안

1. 국제통상의 공존현상과 우리의 통상환경

WTO체제의 출범은 70년대와 80년대에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로 치닫던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을 다시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로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신중상주의 또는 신보호주의로 불리던 교역질서가 이제 개발을 통한 협력의 장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무역권에게 지속적인 무역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가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새로운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예상치 못한 무역관행과 이에 따른 무역분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WTO협정이 과거 GATT에서 규율치 않았던 농산물,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들 국제규범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제의 불균형이나 국내사정 등의 현실적 입장은 다자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상문제를 WTO에서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간의 기본적 관계는 양자관계에서 출발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국의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실상의 차별적 통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무역개방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특정국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시장분할, 목표수치의 설정 등 관리무역의 형태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쌍무적 조치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실에 이며 현실인 듯 하다.

한편 지역주의 경향도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나 속성상 지역내 이해관계를 우선함에 따라 예외없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제주의와 지역주의는 동시적 진행의 공존 질서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자주의가 국제주의 또는 무차별원칙을 근간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국제협력도구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역주의나 쌍무주의를 통한 보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통상질서를 특징짓는 요소로는 WTO의 출범에 따른 국제주의 및 다자주의, 지역주의의 확산, 자국이익 위주의 쌍무주의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요소는 상호 이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병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EU는 국제주의 질서의 수행자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외 지향전략에 따라 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통상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통상정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우리나라의 통상질서별 현안과 대응방안

가.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무역·통상정책의 기본목표는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통상환경의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유교역 질서의 확립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는데 있다. 세계각국은 유사한 통상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 각국의 통상정책목표가 조화·발전할 때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의 복지향상이라는 자유무역의 기본목표가 성취된다.

우리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하에서 대내적으로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면서 교역국경제의 환경을 주어진 제약요인으로 간주하는 소국경제적인 통상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나라의 무역행위가세계시장의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시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 경제는 2000년 기준으로 무역규모가 3,000억불을 육박하고 있어 세계 제 12위의 무역대국이며 EU를 하나로 볼때는 우리 무역의 변화가 제 6위에 해당됨으로써 우리무역의 변화가 세계주요시장으로부터 반향(repercussion)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 무역이 영향을 받을 만큼 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통상정책도 교역국의 경제상황과 국내무역이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소위 대국경제적인 통상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할때 우리 경제는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권력별로 통상협력수단의 최적Mix를 도출하여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국제주의 측면

첫째, WTO의 출범 및 OECD에의 가입이후 국내의 무역·통상 관련 각종 법, 제도, 규범을 WTO에 합치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경제제도 및 정책 수행의 선진화를 이루고있으나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 제도 등의 산업피해 구제 제도, 수출입 관련제도 등의 국내 관련 규정을 지속적용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 덤핑관련협상 등 협상이 종결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UR이 종결된 이후에 다수의 새로운 통상 이슈가 이른바 제 4의 물결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무역과 환경, 노동, 경쟁정책, 기술 및 투자 등 이른바 뉴라운드가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WTO나 OECD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해외투자는 종래와 같은 외환 관리 차원이 아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쟁력 열위 및 사양·한계산업을 개도국으로 이전시키고 국내의 본업체제를 구축하며, 아울러 투자지역의 다변화 및 투자업종의 다양화, 기업의 세계화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개방 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외국 선진 기업의 첨단기술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우리 산업의 고도화 추진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측면

지역주의화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지역 협력체 전체 구도 하에서 각각의 지역 협력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EU, NAFTA 등의 지역주의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에서의 역내결속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태지역은 미국(시장)-일본(기술)-NIES(생산)을 축으로 하는 태평양 3각지대(Pacific Triangle)를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 일본(기술, 시장)-NIES(기술)-ASEAN(생산)을 축으로 하는 역 3각지대가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두 3각지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두 가지 경제흐름의 이익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대미통상·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대미통상규제를 완화하고 대일본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ASEAN, 중국 등과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인 APEC는 개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이고 94년의 보고르 선언, 95년 오사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도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90년대 초까지는 GSP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라는 취지하에 후발개도국에 대한 GSP 공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EU,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구소련 지역 등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상 마찰의 회피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시장 확보, 기술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별국가 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쌍무적 통상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EU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주의의 증진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의 실현에 집중되고 있으나 특히, 이들 국가는 통상현안에 있어 통상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미국상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구매 목표액의 설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여 약속 이행 상태를 감시하는 등 결과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서 상대국과의 마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과 BEMs¹⁶⁾국가의 지정으로 지속적인 대아시아 진출 확대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통신장비, 의료장비 및 건설장비 등 제조업 분야와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노력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한미·EU간의 통상마찰이 이들 국가와의 협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들은 최대의 수출시장이며, 기술 및 자본의 공급처인 동시에 WTO, APEC 등에서 중요한 협력자이다. 이들 국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산업, 기술제휴가 가능한 대상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와의 통상관계의 개선이 특별히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국가간의 통상 마찰을 줄이고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쌍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간 또는 지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선 무역 관련제도의 개선 노력 등 양국간 마찰의 불씨가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오늘날의 국제경제 환경은 기술,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도입 등으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제 통상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탈냉전시대의 3극체제에 대응하여 지역주의가 속성장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주의는 세계전체를 하나의 경제질서로 보고 범세계적 협상이나 규범제정을 통해 완전자유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전의 Bloc경제와 근린공평화정책의 반성에 따라 출범한 GATT나 이를 계승한 WTO로 대표된다.

이와 달리 지역주의는 무역자유화를 특정국가간에 국지적으로만 적용하여 역내완전자유화를 실현하려는 경향으로 이는 호혜 무차별원칙의 결합과 국제경제의 역할논리를 배경으로 한 EU의 유럽경제권과 NAFTA의 북미경제권으로 대표된다.

GATT나 WTO의 국제주의는 최혜국 및 내국민의 무차별 원칙과 관련통상규범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나 기본질서에 따른 각종 규범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의 경우는 북미권의 자유무역협정과 유럽권 통상협정이 역내 자유화의 통상규범이 되고 있으며 이들 양권역은 전자가 공격성 개발성 국제주의의 보완성을 가지나 후자는 수비성, 차별성, 보호적 요소성을 가진점이 차이가 있다.

국제주의 질서나 지역주의 질서가 일용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면서도 후자

16) 미국 통상정책상의 소위 「國家 搜出擴大戰略」으로 國際振興調整委員會(TPCC)가 自國의 貿易經常 赤字를 감축하고 산업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94년 10월 年例報告書를 통해 제시한 전략이다. 여기서 美國은 韓國, 中國, 香港, 대만,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5개국과 폴란드,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모두 10개국 등 巨大新興市場(BEM: Big Emerging Markets)으로 분류하고, 거대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산업으로 환경기술, 정보기술, 의료기술, 수송기술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상기 巨大市場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라 볼 수 있다.

가 역내 자유주의와 역외 보호주의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 이론이나 GATT나 WTO의 현실인정의 예외 규정으로 보완내지 공존관계에 있음이 현실이고 나아가 지역주의나 쌍무주의가 국제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볼 때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제주의질서와는 별개로 지역주의 질서와 이국간 또는 쌍무주의가 현실적으로 공존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통상환경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 이외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컨대 우리경제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권임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시각에서 통상관련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국제주의 질서로 최대한 통상협력을 하면서 지역주의와 쌍무주의 측면에서도 권역별로 충화된 수단의 최적 Mix를 도출함으로써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기홍,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서의 경제통합, 해남, 1998.2.
김세원,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대내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경제질서, 1994.7.
대우경제 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1995.4.
문정인의, 대미 통상로비 연구,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1987.
서현제, 통상문제와 법, 울곡출판사, 1994.
이주영 외, 「미국의 아시아 진출전략과 우리의 대응」, 산업연구원, 1998.
정인교, 한미자유무역지대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8.
한국무역진흥공사,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1990.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통상관계법, 1994.

2. 외국문헌

- 後藤文獻 外 2人, 地域の經濟統合 現狀 展望, 通商産業調査會
石黒一憲 外 1人, 提言通商摩擦, NTT出版, 1993.
小宮隆太郎 外 2人, 世界貿易體制, 東洋經濟新報社, 1990.
Anderson, Belina, Unilateral Trade Measures and Enviromental Protection Policy, Temple Law Review . Vol. 66. 1993.
Bergsten C.F. "America's Unilateralism". Conditions for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Economic Mangement, The Triangle Paper : Mo. 32, A Task Force Report to the Triangle Commission, 1986.
Bergsten Baldwin Robert "Nontariff Distotions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Allen & unwin 1970.
Bhagwati, Jagdish, "Muntilateralism at Risk", The World Economy, vol. 13. no. 2. 1990.

- Bhagwati, Jagdish and Hung H. T. Patrick(eds.), "Aggressive Unilateralism, An Overview",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 Denis Simon & B. Koppel, "Is globalization the 1990s version of interdependence?: a book at some of the critical dimension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entitled < The impact of f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on corporate strategy and structure among Pacific Rim firms> held in Sapporo, Japan, August 3 ~ 7, 1992.
- Destler, I.M. and Peter Balint, The New Politics of American Trade: Trade, Labor, and the Environ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October.1999.
- Hamilton, Collen and Qhalley, Hohn, Protectiong and renewung the Trading system in the 1990s and Beyon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 Haufbauer, Gary clude and Schott, Jeffrey J., NAFTA: An Assessment Washington, D.C.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93.
- Hoekman B, Beyond National Treatment: Integrating Domestic Policies. Washington, D.C. : World Bank. 1998.
- Klein, Joel, "Time for a Global Competition Initiative?", EC Merger Control 10th Annivrmary Conference, 2000.
- Krause, Lawrence B, "Regionalism in World Trade : The Limit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Harvard int'l Review. summer, 1991. Trade Policy in the 1990: good bye B: Polarity, Hello Regions, The World Today, vol. 46. No. 5, May 1990.
- Krasner, Stephen D., "American Trade Policy in a Changing World", Paper Presented to Korea Management Institute Conference on U.S. Trade Policy, December, 1989.
- Lawrence, Rodrik and Whally, . Emerging Agenda for Global Trade: High Stakes for Developing Countries. Policy Essay No. 20.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2000.
- Melamed, Douglas, "Pronoting Sound Antitrust Enforcement in the Global Economy." for dham Corporate Law Institute, 27th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and Policy, 2000.
- Messerlin and J Zarrouk,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Regulations and Customs Procedures" The World Economy, pp.. 577 ~ 594, 2000. 4.
- Nogues, Julio, "The Choice Between Un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Strategy", The World Economy, vol. 13, no. 1, March 1990.
- Ruggiero R, "Opening Address Delivered at World Trade Facilitation Symposium." Geneva. 1998.
- Scholte, Jan, "Global Civil Society: Changing the World", Center for the Society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1995. 5.
- Scherer, F.M, Competition Policies for an Integrated World Economu.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pp. 38-42, 1994.
- Schott, Jeffrey J, "Trading Bloc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World Economy, vol. 4. no. 1, March, 1991.